

‘우라쿠엔의 꽃’

우라쿠엔의 주목할 만한 식물

우라쿠엔은 오다 우라쿠(織田有樂, 1547-1621)와 일본 다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우라쿠가 평소에 좋아했을 것 같은 정원을 목표로 호리구치와 조경업자가 나무, 초목, 이끼 하나하나를 엄선해 배치하고 기른 것입니다. 벚꽃과 동백꽃이 색을 더하고, 키 큰 대나무 숲이 주위 시가지를 차단하며, 풀고사리와 이끼가 석축에 세월감과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모든 식물이 정원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식물을 소개합니다.

우라쿠 동백나무

우라쿠 동백나무(*Camellia uraku*)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전래된 동백나무와 일본 동백나무의 교배종으로 동백나무를 각별히 사랑한 우라쿠가 조안 근처에서 재배, 식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잎은 홑겹이고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도드라지며, 중간 크기의 핑크색 꽃을 피웁니다. 3월부터 4월에 걸쳐 꽃이 피고, 다실 꽃꽂이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라쿠엔에서는 쇼인의 북쪽 정원 서쪽 벽을 따라 심어져 있습니다.

이팝나무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는 5월 중순에 레이스 모양으로 향기로운 흰꽃을 피웁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희귀한 종으로 환경성 적색 목록(Red list)에 멸종위기 II급(VU·취약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누야마시 교외에 집단으로 자생하는 이팝나무는 1923년에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난자몬자' 등 일본식 이름이 여럿 있는데, 그 이름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호리구치는 쇼인 북쪽 정원 유난히 눈에 띄는 곳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구갑죽

구갑죽(*Phyllostachys heterocycla f. heterocycla*)은 키가 크고 두께가 있는 대나무로 마디가 교대로 비스듬히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 거북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식물입니다. 맹종죽이 자연적으로 변이된 것으로, 우라쿠 저택에 대한 사료와 그림에 의하면 구갑죽은 맹종죽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 씨앗이 우라쿠엔 곳곳에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갑죽은 겐안 입구 부근의 한 구획에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운킨(벚꽃·단풍)

우라쿠엔에는 이누야마 도자기의 모티브인 ‘운킨(雲錦)’이 살아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고안(弘庵) 옆 흰 회반죽 벽 바로 북쪽에 오솔길을 따라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머리 높이 부근에서 줄기가 갈라지고 그 벚나무 줄기 가운데에서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